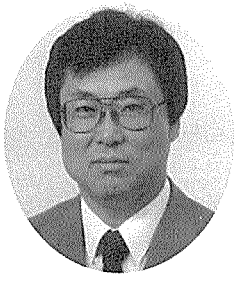
동 향

제9차 세계핵의학회 추진 배경 및 의의



이 명 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세계핵의학회 차기 회장

추진 배경

대한핵의학회는 지난 2000년 9월6일 불란서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핵의학회 각국 대표자 총회 석상에서 치열한 투표에 의하여 차기 세계핵의학회 회장국(2002년부터 2006년까지)으로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어 새로운 천년에 우리 나라 핵의학역사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었다.

본 학회는 1992년부터 3년간 기초 조사 및 가능성 분석 그리고 외국 회원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1995년부터 5년에 걸친 노력과 국내 회원들의 단합된 성원으로 성공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우선 그 추진 배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국내 핵의학 분야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제반 제도가 확립되면서 세계핵의학회 개최 가능성이 보이고 그 성공성에 대한 확신감이 성숙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84년8월 우리 나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대양주핵의학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국제학회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경험한 후 국내 핵의학은 지속적인 발전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1994년 오랜 숙원이었던 PET Center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설치,도입되고 또한 우리 나라 핵의학회의 역사적인 업적인 핵의학전문의제도가 1995년 1월17일 국무회의 통과후 1월28일 대통령으로 신설이 확정되면서 학술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국제 학회지에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2000년 6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미국핵의학회에는 한국에서 발표된 연제 수가 85편이나 되어 세계무대 진출 가능성의 여건이 조성되었고 많은 국제회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둘째로는 새 천년에 즈음하여 국내 핵의학 분야가 새로운 재도약의 시대에 위치하게 되

었다는 것이다. 즉 상존하고 있는 핵의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내외적인 결의 또는 홍보를 위하여 총체적인 결집에 의한 대대적인 행사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국내 핵의학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을 간추려 보면 먼저 일반인이나 의료 관련 전문가들의 핵의학에 대한 인지도가 외국에 비하여 떨어지고 관련 전문 인력과 이 분야 지도자층이 부족하며 유관 부처나 관련 기관 특히 정부기관과의 협력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연구비 및 제반 지원 규모가 적고 약학, 공학, 화학, 물리학 그리고 생물학 등 관련 학문 분야 전문가 양성이 거의 되지 않고 있으며 더군다나 관련 산업체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업환경이 열악하여 거의 대부분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성의약품 및 방사면역측정키트가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핵의학과 경쟁적으로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분야와의 대립과 영역이 축소되는 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셋째로는 아마도 세계핵의학회의 한국 개최유치를 추진하게된 제일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이유로서 가까운 중국 핵의학의 무서운 발전 속도이다.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경제 성장 및 강대국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하게 됨에 따라 중국 핵의학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약진하여 조만간 세계핵의학회 회장국 추진 계획의 우려를 우리는 느끼게 되었다. 세계핵의학회는 전통적으로 세계 5대국을 돌아 가며 회장국으로 활동하게되어 있는 바 만약 중국이 회장국이 되면 지금부터 20년에서 25년뒤에나 세계핵의학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기한 개선점을 해결하는데 한 단계 늦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염려가 되며 이는 핵의학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진 경과

우선 먼저 과거 국제 핵의학회 유치국을 표1에 정리하였다. 세계핵의학회는 1974년 제1차 대회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후 4년 마다 미국, 프랑스, 아르젠티나, 카나다, 호주, 독일을 돌아 가며 개최되었고 제8차 세계핵의학회가 오는 2002년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예

표1. 국제핵의학회 역대 개최국

AOFNMB (아시아대양주핵의학회)	WFNMB (세계핵의학회)
1 1976 Sydney, Australia	1 1974 Tokyo, Japan
2 1980 Manila, Philippines	2 1978 Washington, USA
3 1984 Seoul, Korea	3 1982 Paris, France
4 1988 Taipei, Taiwan	4 1986 Buenos Aires, Argentina
5 1992 Jakarta, Indonesia	5 1990 Toronto, Canada
6 1996 Kyoto, Japan	6 1994 Sydney, Australia
7 2000 Istanbul, Turkey	7 1998 Berlin, Germany
8 2004 Beijing, China	8 2002 Santiago, Chile
	9 2006 Seoul, Korea

정이다. 대개 지구권내에서 4대주를 돌아 개최되었으나 단지 아프리카에서는 한번도 개최되지 못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차기 세계핵의학회 주최국 결정은 6년전 국제핵의학회 기간동안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되며 그 후 2년간은 차기회장 (President-Elect)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그 후 정식으로 사무국을 인수하여 정식으로 회장국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참고로 아시아대양주핵의학회는 호주에서 1976년 제1차대회가 열린후 필리핀, 한국, 타이완,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열렸고 금년 10월1일부터 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대회에서 2004년 중국에서 제8차 아시아대양주핵의학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대한핵의학회에서는 국제적인 학술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3년전 한중핵의학회를 번갈아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2회 대회를 치루었다가 금년 한국, 일본, 중국 세나라가 합의하여 앞으로는 삼국 국제핵의학회(CJK)를 2년마다 세나라가 돌아가며 개최하기로 결의하여 2002년 중국, 2004년 일본 그리고 2006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추진경과를 요약하면 1992년 인도네시아 쟈카르타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대양주핵의학회 참석 후 2002년의 제8차 세계핵의학회 유치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논의만 하기 시작하다가 1993년 6월 미국핵의학회, 1993년 10월 일본핵의학회, 그리고 1994년 10월 호주에서의 제6차 세계핵의학회 등 여러 국제학회에 여러 학회 임원진 및 회원들이 참석하면서 많은 외국 대표 및 저명 학자, 특별히 미국의 Henry Wagner교수, Richard Reba 전 미국핵의학회 회장, 독일의 Dr. Biersack 전 세계핵의학회회장 그리고 Junji Konishi 일본 핵의학회 이사장들과 막후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필요하면 지원 의사 타진을 알아본 결과 유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호주학회후 중국이 조만간 유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는 바

표2. 세계핵의학회 추진위원회 명단

(발기위원회)

위　　원 : 이명철, 정수교, 정준기, 김병태, 이종두

자문위원 : 이문호, 고창순, 박용휘

(제1차 추진위원회)

위　　원 : 이명철(위원장), 정수교(사무총장), 정준기(재무), 김종순, 손형선, 임상무, 이종두, 김병태, 김용기, 전석길, 김창근, 서일택

자문위원 : 이문호, 박용휘, 고창순, 박수성, 박창윤, 이민재, 김춘열, 김목현, 황기석

(제2차 추진위원회)

위　　원 : 이명철(위원장), 정수교(부위원장), 정준기(사무총장), 김병태(재무) , 김종순, 손형선, 최원식, 김성훈, 이종두, 임상무, 범희승, 이동수, 이재태, 문대혁, 김상은, 최창운, 정재민, 배상균, 손명희, 서일택

자문위원 : 이문호, 박용휘, 고창순, 박수성, 박창윤, 김춘열, 김목현, 김지열, 이희경, 이규보

이 강대국의 유치 의사를 조기에 불식시킬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2002년 한국에서의 세계핵의학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무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모두 밝혔지만 그 당시는 몇몇 회원들만 알게 하고 비밀리에 단지 중국을 조기에 견제하는 정치적인 고도의 정책목적으로만 2002년 학회 유치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995년 3월, 공식적으로는 처음 표2에서 보는 데로 세 명의 자문위원과 다섯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발기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최초의 영문 홍보 책자를 제작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곧 1995년7월 제1차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표2) 1996년 10월 일본 경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대양주핵의학회 기간 열리는 세계학회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투표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즉 1996년 3월에 유치 제안서, 홍보 책자 그리고 포스타를 제작하여 협조를 호소하는 편지와 함께 전 세계 약 70개국 대표 및 전세계 저명 학자 또는 지도자들에게 발송하였고 국내외 많은 핵의학학회에 참석하여 전시 및 홍보 활동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1996년 5월에는 국내 대한핵의학회 회원 그리고 유관 부처 및 기관에 발송하여 협조도 부탁하였다. 국내 관련 산업체의 협조로 마련된 기금에 의하여 1996년 9월30일 총회에서의 투표 전 홍보를 위하여 각국 대표를 경도의 한국식당에서 한국의 밤을 개최하였다.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하여 투표직전까지 추진운동하면서 많은 국외 회원들과 협의를 하였다. 유치 희망국은 한국, 칠레, 남아프리카로서 칠레는 오대주 중 남아메리카가 개최 순서임을 강조하고 남아프리카는 한번도 남아프리카대륙에서는 개최되지 않았고 저개발국가에서의 핵의학 진흥을 위하여 필수적임을 주장하여 많은 회원국의 이해를 요구하게 됨을 알았다. 우리는 1974년 일본에 개최된 후 한번도 아시아에서는 개최된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많은 회원국들은 호주에서 2년 전에 개최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특히 미국, 일본등이 명분론을 내세워 2006년 개최를 암시하였고 그럴 경우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였다. 한편 우리는 칠레 유치위원장인 Dr. Horacio Amaral과 사무총장인 Dr. Patricio Gonzales와 조심스럽게 물밑 접촉을 갖고 만약 우리가 유치계획을 포기하고 칠레를 지원할 경우 다음 세계학회 유치시 한국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암시적인 약속도 확보하였다. 10월 투표 당일 투표 직전까지 유치 활동을 한 후 유치 희망국 홍보 발표시 이명철 추진위원장의 유치 철회 연설을 하게 되는데 내용은 많은 회원국들이 적당한 시기가 아님을 강조하였다는 것과 특히 이 투표로 많은 회원국과의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철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밝혔다. 다만 끝머리에서 그래도 2006년 제9차 세계핵의학회만은 한국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유치의사가 있으니 그 때는 꼭 지원과 협조를 구한다는 부탁을 잊지 않았으며 그 결과 뜨겁고 많은 박수를 받았다. 물론 이 때 중국과 협의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우선 아시아대양주학회를 조만간 개최할 것을 유도하였고 대신 한국의 차기 세계학회 개최를 위하여 중국으로 부터 지원을 약속 받아 우리가 계획한대로 일단 중국을 잠재우는데 성공하였다. 우리 나라의 유치 철회로 칠레는 압도적인 표차로 (칠레 34표, 남아프리카 17표) 승리하여 차기 회장국의 기쁨을 누렸다.

그 후 약 2년간 대한핵의학회에서는 각종 국제핵의학회에 참석하여 홍보 책자 배포, 포스터 게시하

면서 차기 세계핵의학회(2006년) 유치 의지를 각 국대표자들에게 천명한 후 협의, 활동하여 지지를 얻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대한핵의학회에서는 1998년5월6일 다시 제2차 유치추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5월25일에는 제9차 세계핵의학회의 학술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포스터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였다. 1999년 세계핵의학회에서는 차기 회장국을 선출하는 총회를 2000년 9월초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핵의학회기간에 열기로 계획하였는데 이럴 경우 많은 아시아 회원국의 불참이 예상되어 한국에는 불리한 반면 경쟁국인 남아프리카에는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관례대로 2000년 10월초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대양주핵의학회 기간에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막후 교섭을 벌렸으나 무의로 끝나고 말았다. 처음에는 한국이 매우 유리하여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할 것으로 자신하였으나 상황이 점차 변화하게 됨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는 금년 2000년 5월부터 8월 전까지 유치제안서를 제작 제출하고 막후 지지요청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였다. 특히 Dr. Henry Wagner가 투표에 이기려면 각국 대표를 빠짐없이 끝까지 접촉하여야 된다는 강력한 자문의견대로 각국 현회장 또는 회의 참석 대표자의 신상을 확보한 후 이들에게 협조편지 발송 또는 전화, 팩스, E-Mail등 수단을 총 동원하여 긴밀한 접촉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동시에 많은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경제적인 여건상 유럽학회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그들과 접촉하여 우리는 방글라대시, 인도네시아, 이란,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올 그리고 태국으로부터 위임장(proxy)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유럽핵의학회 기간중인 9월3일, 한국의 밤을 개최하기로 하고 불란서 파리 도심지에 있는 한국식당(유정)을 전관 사용 예약을 하여 대표자들을 사전 초청하였는바 이 행사에는 외국회원 70명, 국내 회원 2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한국과 남아프리카가 공식적으로 2006년 세계핵의학회 유치를 희망하여 유럽핵의학회 기간 동안 각자 특별 전시 및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며 경쟁적으로 치열한 득표 운동을 전개하였다. 투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추진위원회는 남아메리카 소속 회원국들의 지지 약속을 확인받았으나 예상득표수가 안전권에 있지 않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특히 전 아프리카 회원국들의 단합과 남아프리카의 예상 밖의 적극적인 유치 운동, 그리고 미국, 일본 및 중국등 강대국들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기로 선언함에 따른 반작용 즉 미국 주도의 세계핵의학에 대한 영향력 편중을 우려한 나머지 모든 유럽핵의학회 소속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남아프리카를 지지하기로 결정의사를 표명하여 박빙의 득표분석 결과가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는 학회 시작후 즉시 오랫동안 국제적인 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 Dr. Abdel-Deyem의 협조와 자문을 받으면서 중동국가들과 접촉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동시에 아시아대양주 소속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투표전날은 아프리카회원국 상대의 유치활동은 포기하고 특별히 유럽국가나 남아메리카 국가중 유럽의 영향이 덜 미친다고 생각되는 공산사회주의 동부권 나라중 벨기에, 불가리아, 큐바, 크로아티아, 체코, 그리스, 항가리, 마케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니아 및 유고슬라비아 대표들과 접촉한 후 팀별로 만찬에 초청하여 회식을 갖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만약에 회장국이 되면 초청을 약속하고 개발국가의 핵의학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의지를 천명하는 등 한 표라도 얻으려는 치열한 득표 운동

을 벌렸다. 특히 큐바,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및 마케도니아 등은 나중에 득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장국으로 선출되는데 성공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2000년 9월6일 세계핵의학회 총회에서 이명철 추진위원장이 약10분간 슬라이드와 함께 홍보 연설을 하였는데 주로 우리 나라 핵의학분야 학술활동 현황 특히 2000년도 미국핵의학회에서 85편의 논문이 연제로 채택, 발표되었다는 점, 우리 나라 신변 안전도, 관광 소개 및 특별 대회 프로그램소개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 총회에는 총74개국 회원국중 54개국이 참가하여 투표한 결과 한국 28표, 남아프리카 25표 그리고 기권 1표로 예상한 대로 박빙의 승리를 얻는 기쁨을 누렸고 많은 회원국들의 축하를 받았다.

이로써 한국은 2002년까지는 차기 세계핵의학회 회장국,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은 정식 회장국으로서 명실상부한 지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고 2006년 10월22일부터 10월29일까지(예정) 서울에서 제9차 세계핵의학회 개최국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대외 접촉 및 투표 운동을 하면서 특별히 느껴진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또는 국제적인 신임도 혹은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것인 바 앞으로 학회의 주도적인 활동 방향을 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추진 체계

1. 위원회 운영

앞으로 성공적이고도 효율적인 세계핵의학회 사무국운영 및 학술대회를 위해서 일단 2000년10월부터 2002년10월까지는 8명으로 구성되는 준비위원회가 기획, 준비 및 홍보 활동을 하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세계핵의학회 사무국에 차기회장(President-Elect)으로 서울의대 이명철교수, 차기 사무총장(Secertary General-Elect)에 서울의대 정준기교수, 그리고 차기 재무(Treasurer-Elect)에 연세의대 이종두교수의 명단을 통보, 인준받았다. 준비위원회의 명단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준비위원회

이명철(서울의대)	: 위원장 (President-Elect of WFNMB)
정수교(가톨릭의대)	: 부위원장
정준기(서울의대)	: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Elect of WFNMB)
이종두(연세의대)	: 재무 (Treasurer-Elect of WFNMB)
김병태(성균관의대)	: 학술 프로그램 및 연자 관련 업무
손형선(가톨릭의대)	: 행사, 연회 및 홍보
범희승(전남의대)	: 국제 기구 및 유관기구와의 대외 협력, 정보 수집 (Web Site 운영 및 Links)
진광호(삼성서울병원)	: 국내외 기사학회와의 긴밀한 협조

(간사: Koconex 김은정 협조:학회 사무직원)

그리고 2002년10월 칠레에서 세계핵의학회 사무국을 공식적으로 인계받은 후 2006년 10월 세계핵의학회가 폐회되는 시점까지 공식적인 조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동시에 국내 및 국제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또한 사안의 필요에 따라 역할 기능에 맞는 Task Group (소위원회)를 활용할 예정이다.

2. 협력체계 강화

성공적인 학회 운영을 위해서는 국내, 국제 및 산업체 간의 협력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협력 체계로는 관계부처 특히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재정경제부와 지속적인 협력유지가 필요하고 대한핵의학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 대한방사선의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원자력학회 등의 유관학회, 그리고 원자력연구소, 원자력병원, 방사선보건연구센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등 관계 연구소나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제협력체계강화방안으로는 다단계 및 입체적 전략이 요구되는 바 우선 일본 및 중국핵의학회의 협조로서 이미 확정된 한중일(CJK) 삼국 핵의학회를 통하여 긴밀한 학술교류 강화 및 정보 교환을 통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모색한다. 나아가 현재 거의 고사상태에 빠져있는 동남아시아 (South East Asia: SEA)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할 때 약속한대로 개발국 및 미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핵의학 진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가칭 동남아지역협의체, 협의기구 또는 위원회 (South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Committee or Council; SEA RCC)를 운영하기로 일단 지난 이스탄불회의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한 더 구체적인 논의 및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1년 2월9일부터 2월11일까지 3일간 홍콩에서 제1차 SEA RCC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아시아대양주지역 특히 중동지역으로 적용할 예정이고 이를 위하여 아시아대양주핵의학회 회장국인 중국 (회장 Dr. Xiu Jie Liu)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둘째로 미국핵의학회를 중심으로 지원과 협의를 거쳐, 유럽핵의학회, 남아메리카핵의학회 그리고 아프리카핵의학회와도 입체적이고도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함으로서 지구촌 핵의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끝으로 특별히 관련국제기구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보건기구(WHO)등과 협의하여 공동테마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학회운영에 공동참여 시켜 이들 국제기구들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회원국들에게 전해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3. 홍보활동 및 정보망 활성화

협력체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훌륭한 Web Site를 개설, 운영하며 이를 지역 또는 전체 정보망과 Link시켜 정보 교환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의견 수렴 후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시에 핵의학에 대한 인지도 증대 및 일반인 혹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문, newsletter 또는 텔레비젼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운영과 개최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은 우리 나라 핵의학 분야 회원 모든 분의 관심과 의견 제의 그리고 단합된 힘 즉 화합으로 이를 위한 노력과 제도 및 운영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학술대회 주 내용 및 특별 프로그램

제9차 세계핵의학회의 주요 내용은 일반적인 대회와 달리 크게 세 요소로 구성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가간 또는 회원간 친목 그리고 한국에 대한 대외 인지도 증진을 위한 사교 행사, 둘째는 일반적인 핵의학 관련 학술연구 활동결과와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 행사, 끝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히 다루고자 하는 정책적 행사이다. 특히 새 천년시대에 있어서 다음 10년이 핵의학의 중흥에 제일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는 시각에 비추어 2006년 학회에서는 "Global Harmonization and New Horizon of Nuclear Medicine"이라는 대회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아래 핵의학 진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요 주제들을 선정,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를 전 세계 회원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지향할 의견을 결집하고자 한다.

우선 다루어야 할 주제로서 교육수련제도 및 교육과정, 전문인력수급 전망, 의료보험적용 현황, 국제기구의 역할, 산업체의 역할 및 전망, 국가 정책의 방향, 새로운 기기 및 기술의 현황 및 전망, 비용효과 분석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미래 핵의학의 역할을 조명함으로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구촌 다른 대륙,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및 다른 경제 여건에 따라 최선의 정책을 도출시켜 핵의학 진흥을 위하여 본 학회가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필요하다면 각국을 대상으로 주제별로 설문조사, 서면조사 혹은 다기관 혹은 다국적 분석을 시행하여 정밀한 현황분석을 하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또한 핵의학관련 분야와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관심을 야기하기 위하여 관련 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 교환의 기회를 갖는 기능을 증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야에는 특별히 방사선사고 관리, 방사선생물학, 방사선물리학, 방사선안전 및 방어 그리고 방사선역학관련 분야를 들 수 있다.

기대효과

2006년 제9차 세계핵의학회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을 때에 예상할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국내외 연구학술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또한 관련 산업체의 기술 향상과 경영 개선이 예측된다. 또한 국내에서 핵의학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되어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그 인지도가 향상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수 인력의 양성과 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핵의학 분야에서의 국제적 활동에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국내 핵의학의 재도약의 계기를 갖게 될 것임을 기대한다.

KRIA